
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대유행 대비 방안

2009.8.16(일)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1. 보건복지가족부 1
2. 교육과학기술부
3. 외교통상부
4. 행정안전부
5. 문화체육관광부
6. 농림수산식품부
7. 노동부

보건복지가족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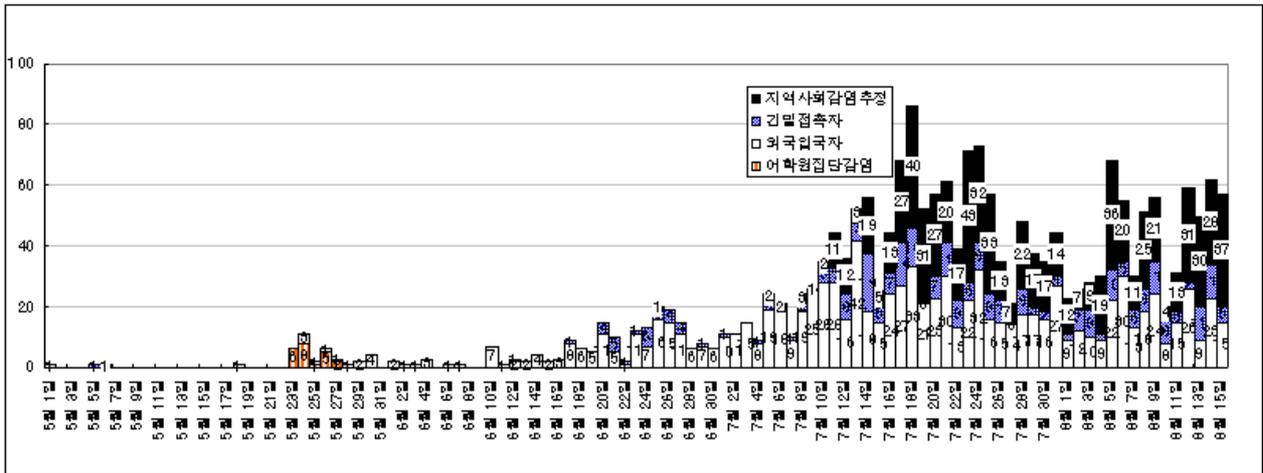
1 신종인플루엔자 현황

1 국내 현황

- 국가 전염병위기단계는 “경계” 유지(7.21~)
- 8.16 현재 확진환자는 총 2,089명(1,681명 완치, 407명 치료중, 1명 사망)
(단위 : 명)

구 분	총계 (신고접수)	음성	검사중	확진환자	치료현황				
					치료		완치		사망
					병원	자택	병원	자택	
8.16 00:00	7,532	4,217	1,222	2,089	46	361	870	811	1

- (감염경로) 외국 입국자(4~6월) → 확진환자 접촉자 및 국제행사 참가자(6~7월) → 학교, 군부대 중심 지역사회 감염 확대(7월이후)
 ※ 외국 입국자 1,033명(49.4%), 환자 접촉자 292명(14%), 지역사회 감염 742명(35.5%)
- (중증도) 폐렴 등 합병증 5명 발생, 사망자 1명 발생(8.15)
- (연령) 10-20대가 71.8%로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



2 국외 현황

- WHO 통계(8.6기준) : 170개국 이상, 177,457명(사망 1,162명) 발생
 - ※ 유행지역 : 남반구 국가(호주, 칠레, 아르헨티나, 브라질 등), 동남아(필리핀, 태국, 인도네시아 등)
- 위중도는 계절인플루엔자와 유사하지만, 바이러스 변이, 항바이러스제 내성 발생 등으로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어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중
 - ※ 덴마크, 일본, 홍콩에서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 출현(총 6건)
- 북반구 국가는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하여 환자치료 및 백신 접종을 중심으로 대책 준비중임

2 그간 주요 조치사항(경계단계)

- 시·도 및 시·군·구 중심 신종인플루엔자 관리체계 강화
 - 시·도 및 시·군·구 인플루엔자대책본부(본부장: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, 시군구 부시장·부군수) 구성·운영, 24시간 비상대응방역체계 가동(7.22~)
 -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 확진검사체계 확충
- 검역 강화 및 입국자 추적관리로 국내 유입 차단
 - 고위험국가(11개국)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질문서 징구 및 건강카드 배포, 입국후 주의사항 SMS발송
 - ※ 고위험국가 : 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영국, 스페인, 호주, 뉴질랜드, 칠레, 태국, 홍콩, 필리핀
 - 나머지 국가 입국자는 입국장 발열감시 실시, 건강카드(입국후 주의사항) 배포
 - 해외 출국자 대상으로 홍보요원이 예방수칙 홍보자료 배포

□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 확충

- 인플루엔자 임상표본감시 확대(678개소 → 826개소, 9월 시행)
- 병원기반 감시체계 확대 운영(20개병원 → 40개병원, 8월 시행)

□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

- 항바이러스제(278만명분, 추정 586억원), 열감지카메라(25대) 등 의약품 및 관련장비 추가 확충
-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확보
 - ※ 전국민 27% 수준인 약 1,336만명 접종을 위해 1,930억원 예산확보
- 국가격리병상 운영 추가 확보 추진(현재 5개 병원, 197병상)
 - 지역사회 유행 대비 치료거점병원 지정(455개소, 8,649병상)

3

가을철 대유행 대응방안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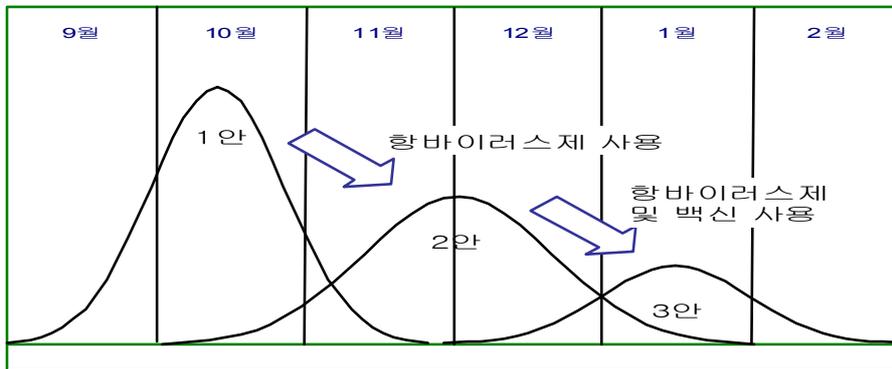
향후 전망

□ 가을철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대량 환자 발생 예상

- (유행시기) 9월초에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넘어 10월~11월에 유행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음
 - 집단발생예방, 환자조기치료, 개인위생강화 등 적극적 조치로 유행 확산을 늦추어 유행 정점을 최대한 지연시키도록 함.
 - ※ 8월 하순, 학교 개학 이후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큼
 - ※ 계절인플루엔자는 11월말~12월초에 유행기준을 넘어 12월말~1월초 유행정점 도달
- (유행규모) 항바이러스제, 백신 등 적극적인 방역대책으로 입원 환자 10~15만명, 사망자 1~2만명 이하로 감소시킴

※ 항바이러스·백신 등 방역대책이 없을 경우, 전체인구의 20% 감염 발생, 입원환자 20만명, 사망 2만~4만명(0.04~0.08%) 발생 추정

- (질병 심각성) 남반구 유행과정에서 바이러스 변이로 중증도 증가, 항바이러스제 내성 바이러스 증가 우려 존재
- (사회적 영향) 8-16주 짧은 기간에 대량 환자 발생으로
 - 외래·입원환자의 폭발적 증가로 기존 의료시스템 마비 우려
 - 직장 결근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사회경제적 부담 급증



<예방조치에 따른 환자발생 양상 변화>

2 대응 방향

- 신종인플루엔자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하여 대유행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발생규모를 줄여, 중증환자·사망자 발생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함
 - 신종인플루엔자 입원환자수, 사망자수 발생 최소화
 - 최악의 경우 가정하에 상황 발생 이전에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선제적으로 대응
 -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 시행

□ 환자조기치료·백신접종 중심이 “피해최소화”전략 추진

-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환자발생 예방
- 치료거점병원 및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조기·적정치료로 입원·사망 방지
- 학교, 군부대,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로 집단 중심 유행 전파 차단
- 사회 핵심분야 및 기업별 업무지속계획(Business Continuity Plan) 추진으로 노동력 상실 등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
- 대유행시 행동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

3 세부 추진계획

① 집단생활시설 관리 강화로 유행 전파 차단

- 집단생활시설(학교, 군·전경부대, 사회복지시설 등)을 중심으로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 신고토록 감시체계 강화
- 집단생활시설 내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 진단 및 조기 치료, 근접접촉자 대상 항바이러스제 투여로 전파 차단
-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스스로 자가격리 또는 학교 휴업이나 휴교 조치에 자발적으로 응하도록 유도
 - 유급휴가, 보충수업 등을 통해 자가격리로 인한 개인피해 최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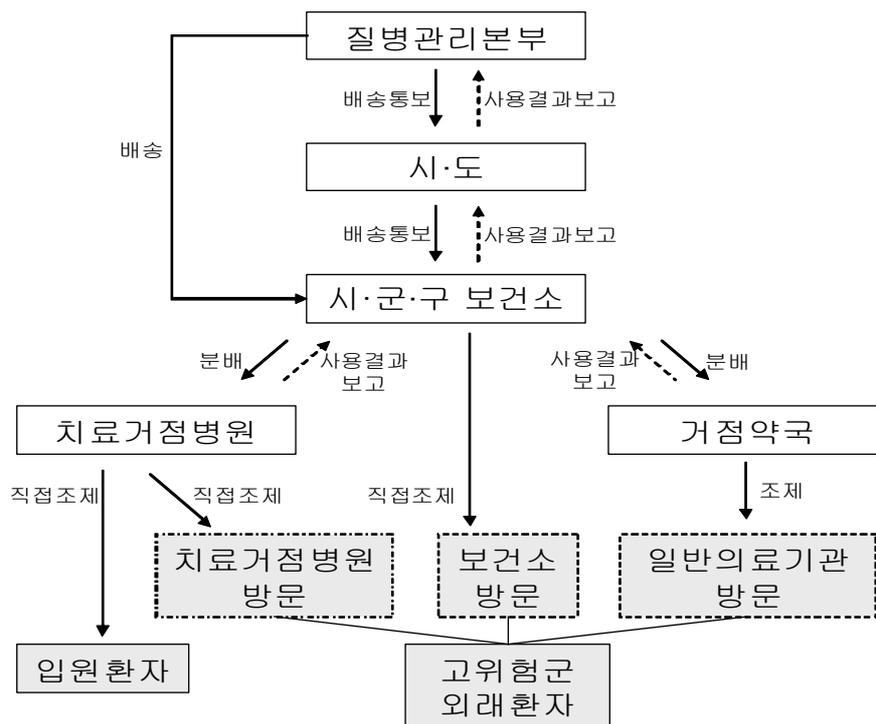
② 치료거점병원 및 항바이러스제 공급체계 구축

-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공급, 조기·적기치료로 입원·사망 예방
 - (비축현황) 약 531만명분(인구대비 11%)

- (투여대상) **입원환자, 고위험군 외래환자**(노인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)
- ※ 투약대상자 추정 : 폐렴 등 합병증 입원 환자(24만명), 고위험군 외래 환자(250만명)
- (공급절차) 질병관리본부 → 시·도 → 보건소 → 치료거점병원, 거점약국, 보건소를 통한 **무상 공급**
- (관리체계) 항바이러스제 전산관리시스템 및 일일보고체계 운영하여 비축물량 관리, 중복투약 및 가수요 통제

○ 치료거점병원 지정하여 폐렴 등 중증환자 적정 치료

- (지정현황) 455개소, 8,649명상 (8.14.기준)
- (역할) 인플루엔자로 인한 폐렴 등 중증 환자 입원 치료
- (운영) 항바이러스제, 개인보호구 등 필요물품 사전배분, 의료기관별 진료체계 구축, 병원감염 예방대책 추진 등
- (교육) 8월말부터 치료거점병원 2차 교육 실시



③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환자발생 예방

○ 백신 접종 목표

- (목표) 금년 11월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
- (접종대상) 약 1,336만명 (전국민 대비 27% 수준)
 - ※ 의료인 및 방역요원 등 전염병 대응요원(100만), 아동·임신부·노인 등 취약계층(420만), 집단생활로 감염확산이 쉬운 초·중·고 학생(750만) 및 군인(66만) 전원
 -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세부기준 확정 예정
 - ※ 소요예산 : 약 1,930억원 (1도즈당 7,000원 기준, 기정예산 활용 및 예비비)

○ 백신 확보 방안

- (현황) 전세계적으로 백신 수요 폭증하여 공급량 부족 및 백신 가격 상승으로 국내 수요에 필요한 백신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
- (방안) 국내제조사 백신 생산량 확대(면역증강제로 2-4배 증량), 외교채널 등 범정부적, 다각적인 접근으로 해외물량 확보
- 국내제조백신 신속허가절차 진행으로 접종시기단축('10.1월→'09.11월)

○ 예방접종 시행계획

- 백신 접종 방법 : 전염병 대응요원 및 취약계층(보건소 접종), 영유아 및 임신부 등 고위험군(위탁의료기관 접종), 학생(단체접종)
-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능동감시·신고, 중증사례 역학조사 실시
- ※ (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)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국가보상

④ 대유행시 행동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

○ 대상자별 대유행시 행동요령 작성하여 홍보 시행

-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예방수칙 등 행동요령 전파

- 129콜센터, 1339응급상담전화 등을 통한 전화상담 강화
- 정기적인 언론 브리핑, 출입기자단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 제공
- 학생, 군인,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대상 교육·홍보

□ 대유행시 신종인플루엔자 홍보 핵심 메시지

- 손씻기, 기침 예절 강조 및 증상 발현 시 진료
-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대증요법에 의한 자가격리 및 휴식을 권고함
- 폐렴 등 고위험군의 경우 조기 발견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
- 중증환자의 경우 치료거점병원 이송 진료

⑤ 분야별 업무지속계획(BCP)추진으로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

- 경제피해 최소화 및 사회핵심 분야 보호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각 분야별 업무지속계획(BCP) 시행
 - 부처별 BCP 수립대상 사업, 기관 선정하여 계획수립 및 실행 지원, 점검
 - ※ BCP 수립 주요 대상
 - 주요자원시설 : 정부기관, 댐, 상업시설, 원자력발전소 등
 - 필수기반시설 : 식품/농업, 의료기관, 금융, 화학/위험물질, 방위산업 등
 -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BCP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(복지부)
 - : 단계별 조치사항, 결근대비 사업계획 수립, 기업내 감염관리 등

4

관계부처 협조사항

□ 교육과학기술부

- 개학 이후 학교 중심 집단발병 예방 및 관리 대책 추진
 - 학생·학부모 대상 홍보 지속(SMS 등, 예방수칙 및 유증상자 치료후 등교)

- 해외연수·캠프 참가학생 집중관리(개학전 해외다녀온 경우 입국후 7일간 발열여부 확인후 등교 권고)
- 개학 이후 학교별 발열환자 및 결석자 감시, 조기 대응

○ 학생 백신 접종계획 추진

- 특별교부금 조기집행
- 학교별 백신접종 계획 수립

□ 외교통상부

- 해외 유행 및 항바이러스제 비축 및 투약, 백신 정책 관련 정보 수집
- 해외여행객 정보제공 및 홍보

□ 국방부

- 군부대 집단발병 및 감염확산 방지대책 추진
 - 부대별 발열환자 감시체계 운영, 의심환자 발생시 신고
 - 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강화
 - 환자 발생시 전염확산 차단을 위해 접촉자 격리 및 발병감시
- 백신예산 조기확보 및 집행
- 군인 대상 백신접종 계획 수립

□ 행정안전부

- 지자체 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중심 지자체 대응 강화
- 경찰, 소방 등 집단발병 및 감염확산 방지대책 추진, 백신 접종 계획 수립
- 지자체 대규모 행사시 신종인플루엔자 관리 강화

- 지자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예산 조기집행
- 예방접종, 약품관리, 환자 관리, 홍보를 위한 인력, 조직 확충
- 반상회보 등 지자체 홍보 강화

□ 문화체육관광부

- 정부보유매체 활용 홍보(전광판 등), 방송사 자막 스크롤을 통한 예방수칙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
- 예술·체육·종교 관련 공연 및 집회시 보건당국과 협력체계 구축

□ 농림수산식품부

- 가금류, 가축의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관리 및 감시체계 강화
 - ※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조류 등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전자 재조합 등으로 변이를 일으켜 독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감시 필요
- 닭,오리,돼지 사육농장 종사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강화

□ 노동부, 지식경제부

- 신종인플루엔자 기업 대응 지침 및 예방수칙 홍보
- 직장 집단발병사례 조기인지 및 신고체계 구축
- 기업 업무지속계획 수립 지원

□ 기획재정부

- 9~12월 대유행 대응 예비비 추가 편성